

#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Lockdown Level 2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문에 붙어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등록하거나 입구에 비치된 등록 용지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고 비치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소독하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2. 다음 주일은 그루터기(3040)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관심과 신앙의 용기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4. 신앙의 토대 성경공부 월요일 반 내일 (8일)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5. 항존 직분자 교육이 예배 후에 느헤미야실에서 계속됩니다.
6.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김은희 집사(고석승 집사) 친정아버지가 목요일에 소천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8. 주일예배는 Lockdown이 1단계로 내려올 때까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교회 홈페이지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로 들어가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Lockdown이 1단계로 내려올 때까지 예배 안내 위원이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주보는 들어오시면서 한 부씩 지참하십시오.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http://www.koreaniptv.co.nz)



## 6월 교회사역일지

6월 14일 (주일)  
그루터기 주일 (3040)  
6월 24일 (수)  
베트남 공동체 주관 예배  
6월 28일 (주일)  
성찬주일, 유아세례, 권사 기도회

## 6월 기도 순서

6월 14일 (주일)  
손조훈 집사  
6월 17일 (수)  
박후임 권사  
6월 21일 (주일)  
이광희 A 장로  
6월 24일 (수)  
공동체 주관

## 6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23호

2020.06.07

#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금 주 기 도 황보준호 형제  
다음 주 일 김다운 자매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요한일서 5:6-8 -----	인도자
✧찬 송	----- 64장 -----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58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 창세기 8:1-12 -----	인도자
설 교	-----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노아 -----	이태한 목사
찬 송	----- 412장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310장 (1,4절) -----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	박제란 권사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20:17-18
설 교	-----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	이태한 목사
찬 송	-----	176장
주 기 도	-----	다같이

## 선교란

### 이번 주는 카자흐스탄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식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3월 19일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길 간구합니다.

**2월, 세미나** 2월 중순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불신자만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주위의 불신자를 찾아 매주 한 가정에 모여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한 교회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나누는 세미나였습니다. 불신자를 작은 그룹(목장)에 초대하고 식사와 교제를 매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심을 보일 때 교회로 인도합니다. 선교지에 적용 가능한 교회의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보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3월, 한국 도착** 한국이 조금씩 진정이 되어가는 동안 해외는 본격적으로 코로나로 심각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즈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고 한국에 도착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에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최근** 조금씩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자 교회도 2주 전부터 엄격한 검사를 하고 소수의 사람만 출입을 허락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인원이라 교회는 썰렁한 감도 없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기뻐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특별한 혜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이 세계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기도 제목

- 2주간 서울을 갈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에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 조심스러운데 같지 안 같지 잘 결정하고, 가게 된다면 조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는 8월 4일 일정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카작대사관에서 모든 비자 업무를 정지했습니다. 지혜롭게 이 시간을 기다리고 비자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세상의 어지러움과 혼란에도 요동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 안에 보호받은 교회가 되도록.
2. 신앙적인 새로운 다짐이 있는 성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3.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들이 회복하여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 나눔란

### 2020년 5월 31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문을 닫으시니라> 창세기 7:11-24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홍수 심판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7:6) 둘째 달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으며 17일부터 40 주야 비가 왔습니다(7:11). 그 후 150 일간 방주는 물에 떠있었으며(7:24) 열째 달 초하룻날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이 모든 기록은(8:5) 사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또한 이 홍수는 요즘 볼 수 있는 폭우 정도가 아니라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7:11) 물이 땅에 넘쳤기에(7:19) 홍수 후에 궁창위의 물이 없어져 지구의 온도차와 인간 수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수 심판을 보지 못해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습니다(요 20:29).

**2)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7:16).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에게 문을 닫았던 신랑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계 3:7).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기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할 것입니다(마 24:38-39). 우리의 유일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고전 1:18)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산지와 죽은 자 사이에는 그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남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7:23). 문 하나 차이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차이입니다. 밭에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마 24:40) 구원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산위에 배를 짓는다고 조롱당하던 노아는 높은 산들보다 심오 규빗, 약 7미터나 더 높이 오른 물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7:20). 열매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힘을 삼고(합 3:17-19) 높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때가 세상에겐 심판의 때입니다. 노아는 홍수 상황이 아닌 방주 위쪽으로 난 창으로 오직 하늘 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오직 방주 되신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소돔성 루트의 사위들처럼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 주간 성경 묵상: 시편 6 - 33편

####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8: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